법정공방으로 번진 농협-광은 '區금고 전쟁' 왜

경영수익·영업권 확장에 사활

선정 둘러싸고 잡음·뒷말 무성

광주시 남구청의 구금고를 차지하기 위해 광주은행과 농협 광주지역 본부가 유례없는 경쟁을 펼치면서 법정 공방으로 까지 확대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지역 금융계에 따르면 남구청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3년 동안 관리하는 구금고의 명목상 수탁액 규모는 2천억원대에 달하지만, 사실상 은행의 수익과 직결되는 월평균 잔고는 45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광주은행측은 450억원 가량 예금을 활용해 창출할 수 있는 이윤이 4~5억원 안팎에 불과한 데다 구정발전기금으로 상당분을 출연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이윤이 남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양측 갈등의 이면에는 구금고로 지정될 경우 공신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돼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등 직·간접적인 기대효과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수백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급여통장계좌를 확보하게 되는 등 신규 고객 창출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으론, 양측이 그동안 수차례 영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금고 유치전을 펼쳐온 갈등이 표면화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광주은행이 광주 지역에서 광주시청, 동구청, 서구청, 남구청, 북구청 등 5개 자치단체의 금고를 장악하는 등 지역의 대표은행으로 군림해오는 동안 농협 광주 지역 본부는 광산구청 구금고 만을 확보하는 등 사실상 열세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과 농협 광주지역 본부의 경쟁은 사활을 건 투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농협 광주지역 본부는 지난해 11월 30일 광주은행이 구금고로 선정되자, 심의 절차를 문제삼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을 이끌어내는 등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심의위원들이 임의로 심사기준을 변경했다는 주장이었다.

농협 광주지역 본부는 이어 11일 열린 남구 금고지정심의위 심의를 거쳐 구 금고로서 지위를 확보, 12일 계약체결을 마쳤다.

반면, 광주은행은 11일 농협과 남구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 효력 및 집행정지 신청'과 '금고지정 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광주은행이 남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12일 받아들여지는 등 또 다른 법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남구청은 지난해 11월30일 남구 구금고지정심의위의 심의결과에 반해 일체의 금고지정 및 금고지정 계약체결을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5·18사적지 원형보존 광주·전남시도민대책위'는 12일 오후 최근 발표된 옛 전남도청 별관 구조안전진단과 관련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도청 별관, 보강·보수해도 10년 내 무너진다"

5·18원형보존대책위 "그말 믿을 수 있나"

구조안전진단 결과 신뢰성 의문 제기

옛 전남도청 별관에 대한 보강·보수공사를 하더라도 10년 내 무너질 수 있다는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옛 도청 별관 부분보존을 주장해 온 '5·18사적지 원형보존 광주·전남시도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2일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조안전진단 결과와 상관없이 부분 보존하기로 한 합의정신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청별관 안전진단은 보존을 전제로 한 보수와 보강의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인데도 추진단이 용역 목적에서 벗어나 직접적으로 철거를 운운해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지난해 도청별관을 부분보존하기로 한 합의정신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단은 각계 전문가와 대책위를 비롯,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도청 일원의 사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단의 설계자문 회의에 참석한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이날 "자문위원 11명 중 상당수가 이번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며 "역사적 보존 가치가 큰 건물이 오래됐다고 철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건축가 신왕선씨도 "이번 구조안전진단의 목적이 도청별관 보존 및 유지관리 방안 확립인데도 결론은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내렸다"며 "일본에서는 최근 64년 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복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청별관 안전진단 결과 건물의 부식현상이 심해 원상회복하거나 보수방법을 찾을 수 없어 철거를 필요로 하는 E등급으로 판명났다고 밝힌 바 있다. 추진단은 14일 오전 광주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향후 일정 및 2010년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보상금 평균 5%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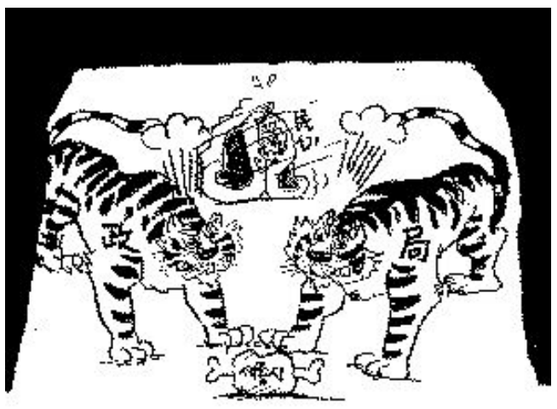
국가·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예우가 강화된다.

정부는 1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 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평균 5%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庚寅年, 호랑이해 답긴 하다

전남 곳곳 사계절 푸른잔디 깐다

市·郡 특화산업 선정 … 소득 창출·관광자원 활용

앞으로는 전남지역 곳곳에서 사계절 푸른 잔디를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사철잔디 식재사업을 특화산업으로 선정해 이를 농가소득 창출과 연계하고 경관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는 겨울에 잎이 퇴색하지 않고 춥고 습윤한 곳에서도 생육이 활발해 연중 녹색을 유지하는 사철잔디의 특성을 가로 경관과 해안 경관 등에 이용하기로 하고 사철잔디 식재사업을 도 특화사업으로 선정했다.

전남도는 우선 공공사업 중 가로경관, 해안도로, 관광지 주변 경관 등에 사철잔디를 식재해 상반기 중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올 하반기부터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 경관기본계획 등에 사철잔디 식재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 잔디산업을 농가소득 창출과 연계한 향토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지역민 휴식공간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경관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의 공익형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 품목에 사철잔디가 포함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국토해양부와 산림청 등에 녹색경관디자인 발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기석 전남도 공공디자인과장은 "경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경관 가꾸기사업이 지자체별로 전개되고 있다"며 "녹색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경관관리 시책을 추진해 도내 자투리 땅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400만원 봉급자 세금 월 7,890원 줄어든다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1월부터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세액이 월급여 400만원인 사람은 작년보다 7천890원이, 500만원인 경우는 1만6천390원이, 1천만원인 경우는 5만8천800원이 각각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09년 세제개편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월급여에 따라 작년보다 4.8~6.0% 줄어든다. 600만원인 경우 2만4천890원이 인하된다. 다만 월급여 300만원 이하는 작년에 세율 2% 포인트를 한 번에 인하하면서 올해는 변동이 없다.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비용의 4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주는 월세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 월세액과 사글세액의 합계액을 공제 대상으로 하되,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지출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소득세를 10년간 감면해주는 낙후지역의 범위를 광역시 5곳, 수도권에 연접한 충청.강원지역 10개 시.군, 인구 30만명 이상의 10개 지방 중규모 도시 등을 제외한 곳으로 정했다.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완화해 피상속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해 판단키로 했다.

/연합뉴스

지자체 하도급 폐해 차단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컨소시엄인 공동수급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주(主)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체의 관급공사 과정에서 수주업체인 종합건설업체와 하도자인 전문건설업체 사이에 빈번히 발생하는 임금 체불이나 하도급자 선정 비리 등의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행안부는 이 제도를 공사액 2억~100억원인 중·소규모 공사에 우선 시행하고 추후 대규모 공사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동수급체 참여업체는 원칙적으로 3개사 이내로 하되, 공사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5개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부 고

족질 찬기 大人하동정공 洪柱(학교법인 춘곡학원 이사장) 께서 2010년 1월 12일 오전 5시 30분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발인일시 : 2010년 1월 14일 오전 10시
■ 발인장소 :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분향실
■ 장 지: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1구 선영하

嗣子 정찬기
찬헌
찬훈
찬례
찬옥
찬경
찬기
女 정 찬순
孫 홍숙
子婦 최화남
김명회
장귀찬
婿 이정옥
이철
이기
호상 정창동

연락처 062-231-8901
010-3185-6111
(개별부고 생략)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올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전기소방
자격취득 종목 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기기능사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계분야]
❖ 실업자 및 계좌제
- 대상 : 실업자 야간대생 등 - 개강 : 2월 1일
- 현재 접수 中, 선착순 00명
6개월, 주 5일, 1일 4시간(오전반, 야간반)
※ 본원 방문하여 상담접수 바람
❖ 직장인 과정(국비 100% 환급)
❖ 산재장애인(무료)훈련수당 지급
❖ 특전- 병원,호텔, 빌딩, 아파트 등 전기관리직 및 전기 전문 업체 취업보장
병역특례 군 미필자, 군면제를 받는 병역특례 업체 / 취업알선[입영연기100%]
문의 ☎ 374-2404, 373-1959
건설전기기계학원

제3종 (자동차 대인·대물)
손해사정사
농산물 품질 관리사
제1회 보험 심사역
개강 1월 15일
*국비지원·고용보험환급
*농품사시험일 (2010년 5월9일) 평일반 주말반
새롬행정고시학원
상담문의 361-8110
농성동 서구청앞 광주은행 2층

한국씨티은행과 한가족!
citi 신용대출 직장인 사업자
한국씨티그룹캐피탈(주)
2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
대출대상
- 직장인(또는 배우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대출금액
- 최저 200만원~최고 5,000만원
대출기간
- 1년 ~ 최장 4년까지(6개월단위)
대출금리
- 100만원당 1년 만기 상환시 월 4천 500원부터
신용도를 관리해 드리는 채무통합서비스
타 사에서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고객님께 더 나은 신용도를 열어드리는 채무통합 서비스!
취급수수료 면제 및 월 납입금까지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씨티파이낸셜 전화상담 010-7167-3838